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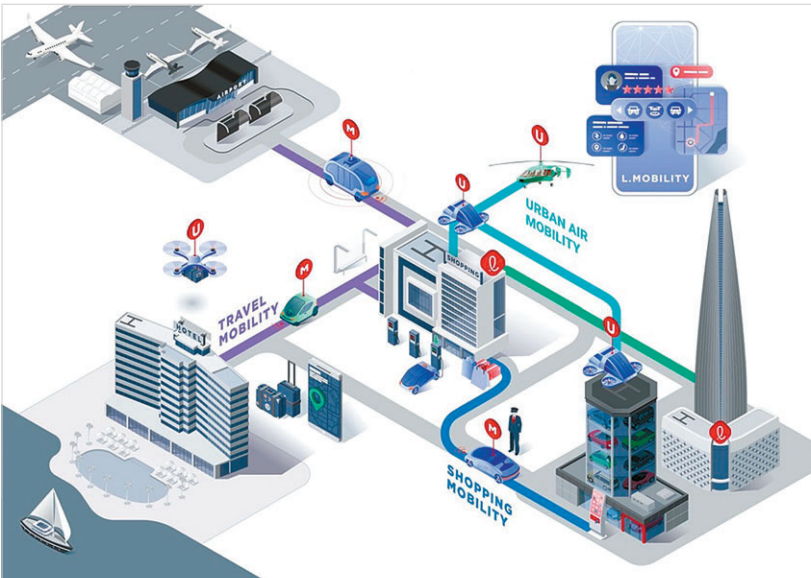
파라다이스시티, 10일 한우 코스 갈라 디너 진행

영종도의 파라다이스시티는 10일 '본앤브레드X다리오 체키니' 컬래버 갈라 디너를 한식 레스토랑 '새라새'에서 진행한다. 프리미엄 한우 오마카세 전문점 본앤브레드와 250년 역사의 이탈리아 정육식당 '안티카 마첼리아 체키니'의 부처이자 셰프인 다리오 체키니가 협업한 한우 코스 요리를 선사한다. 10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K-UAM' 1단계 실증사업에 대기업 컨소시엄 줄줄이 출사표



현대차그룹은 빌딩 숲 사이를 비행하는 UAM을 타고 환승 거점인 허브에서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갈아타는 미래도시를 목표로 UAM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UAM과 미래도시 이미지(왼쪽 사진). 롯데는 그들이 보유한 유통, 관광인프라와 연계해 차별화된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현대차·롯데렌탈

“2025년 UAM 상용화…하늘 나는 택시 탄다”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현대차 컨소시엄 등 50여 곳 참여
기체·버티포트·자율주행차량까지
지상↔항공 통합 모빌리티 개발 추진
1단계 검증 후 도심 지역에서 실증 진행

국토교통부가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이하 K-UAM GO)' 1단계 실증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도심에서의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일명 에어택시)를 뜻한다. 미래 대도시에서의 이동 및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자 PBV(목적기반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과 함께 혁신적인 이동 경험을 안겨다 줄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2040년 1845조 UAM 시장 선점 경쟁
주요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K-UAM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UAM의 폭발적인 성장성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21년 70억 달러(약 8조7640억원)에서 2040년 1조 4739억 달러(약 1845조 3228억 원)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승객수송량 분야는 8510억 달러(약 1065조 원), 화물수송 분야는 4130억 달러(약 517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UAM 산업은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신소재에 이르기까지 연계 산업의 파급력이 매우 큰 중요 미래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K-UAM 1단계 실증 사업에는 주요 대기업 컨소시엄 5곳과 단일 기업 등을 포함해 50여 곳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KT, 현대건설, 인천공항공사, 이진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현대차그룹이 UAM 기체를 개발하고 현대건설은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의 구조 및 제반시설 설계·시공 기술을 개발하며, KT는 UAM 통신인프라와 데이터 플랫폼 개발, 모빌리티 사업 모델 연구 및 UATM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대한항공은 UAM 운항/통제 시스템 개발 및 여객/물류 운송 서비스사업 모델 연구 등을 맡는다.

●내년 전남 고흥에서 1단계 검증

롯데는 계열사인 롯데렌탈,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과 스타트업 UAM 기체 운항사 민트어어, 배터리 모듈 개발사 모비우스에너지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K-UAM GC 실증 사업 전 분야에 도전한다.

롯데렌탈은 버티포트 및 버티포트 운영장비(중전) 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롯데건설은 버티포트 구축 관련 설계 및 시공기술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UAM 컨소시엄의 ICT 솔루션 개발 분야 전반을 담당한다. 기체는 기체 운항사인 민트어어에서 스카이웍스에어로노틱스의 호크4 기체를 전동화한 5인승 유인기체를 활용해 비행시험을 수행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는 K-UAM GC 실증 장소인 전남 고흥군 내에서 롯데렌탈이 투자한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해 UAM 사용자가 지상과 항공 모빌리티로 이어지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연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은 UAM 교통

관리 시스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UAM 교통관리 시스템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비행 계획을 승인하고 교통 흐름을 표시하며 예상 경로를 생성하는 등 운항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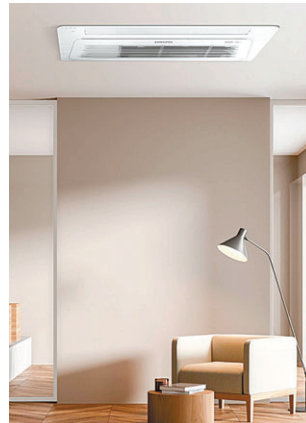
또한 3개사는 버티포트 구축 및 권역 감시, 보안·안전 관련 지상 운용 관련 실증을 맡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은 UAM 서비스 제공 공간과 기상정보 관련 운항지원정보제공 관련 실증을 담당한다. 기체는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S4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한다. 대우건설은 기체 및 구조물의 풍하중 평가, 버티포트 구조 설계 등 시공 분야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비행계획·운항, 기체 안전성 및 개발 연구에 참여한다.

K-UAM GC는 총 2단계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1단계로 내년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능성 시험장에서 UAM 기체, 통신체계 안전성, K-UAM 교통체계 통합운영 등을 점검하고, 2단계는 1단계 성과를 종합해 2024년부터 도심 및 준도심 지역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11번가, 삼성 '시스템 에어컨' 공식 론칭

천장 매립형 제품…일반 소비자들도 간편 구매 가능



11번가가 B2B(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판매됐던 '삼성 가정용 무풍 시스템 에어컨'(사진)을 e커머스 최초로 공식 론칭한다.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에 매립해 설치하는 제품으로, 삼성전자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아파트 시공사 등 B2B 형태로 대규모 계약을 맺고 판매해왔다.

이번 11번가 공식 론칭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그동안 쉽게 살 수 없던 천장형 에어컨을 간편하게 믿고 구매해 설치까지 할 수 있게 됐다. 7일부터 11번가 내 삼성전자 공식 온라인 인증점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상품 결제 후 삼성전자 전문 설치기사가 방문해 설치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하고 일정을 협의해 실제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게 된다. 11번가는 공식 론칭을 기념해 삼성 가정용 무풍 시스템 에어컨 프로모션을 17일까지 연다. 행사 기간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비스포크 제트청소기'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LGU+, 적십자사와 사회안전망 구축 파트너십



LG유플러스는 대한적십자사와 재난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 협력을 위한 ESG 전략 파트너십(사진)을 체결했다. 양측은 재난구호 대응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빠른 출동을 위해 구호활동 전용차량을 마련하고, 재난현장에 필요한 구호물품을 선별해 비치할 예정이다. 또 전국 주요지역에 대민구호 담당 인력을 지정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사회 공헌 등 다양한 활동을 대한적십자사와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 올레길 | 우리 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나이 가리지 않는 골다공증, 정기검사해야 칼슘·비타민D로 개선…골밀도 유지 중요

조골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뼈에 구멍이 뚫리며 밀도가 약해진다. 이러한 증상이 바로 골다공증이다. 만약 무리한 다이어트 일정을 소화할 경우 영양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곧 조골세포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뼈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골다공증을 부추기는 것이다.

노화에 의해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내 뼈 양은 30세 전후에 최대치를 기록하는데 이후 노화에 따라 뼈 양이 하락세를 그린다. 노화로 조골세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골다공증을 초래할 수 있다.

45세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이라면 폐경기에 골다공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폐경 이후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가 갱년기 골다공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이 나타날 경우 골조직이 부실하게 변해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골다공증은 뼈 밀도가 저하되어도 외관상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골밀도 측정을 이용하면 측정 수치 결과에 따라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심한 골다공증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밀 검사 후 골조직이 저하된 상태라면 칼슘, 비타민 D 중심의 약물 치료를 통해 골다공증 개선에 나선다. 무엇보다 골밀도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뼈에 건전한 충격을 주는 항중력 운동과 근력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 전신스트레칭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다

알산 트트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우진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렘펠 한국지엠 신입 사장, 첫 현장경영은 부평공장 방문

설비투자·신차 생산 준비 상태 점검
“차세대 글로벌 모델로 경영정상화”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주식회사 신입 사장이 3일 첫 현장 경영으로 최근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해 설비 투자와 신차 생산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한국지엠은 글로벌 신차(CUV) 생산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추진한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에도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글로벌 신제품을 추가 생산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2000억 원대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약속했던 두 개의 글로벌 제품의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50만대 규모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게 됐다.

로베르토 렘펠 사장은 “창원과 부평에서 내년부터 생산될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은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GM 한국사업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방문해 신규 설비와 신차 생산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지엠

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핵심 모델 중 하나”라며, “제품 디자인부터 엔지니어링, 생산에 이르기까지 GM 한국사업장의 모든 역량이 집약된 모델인 만큼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생산 시설 투자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부평공장은 프레스, 차체, 조립 공정의 설비들을 새롭게 갖추고 기존 설비를 최신 설비로 대거 교체하는 등 생산성과 작업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원성열 기자

서울관광재단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서울 핫플 생중계”

‘비жит서울, 온더로드’ 통해 매달 소개
국내 거주 다국적 인플루언서들 진행

서울관광재단은 4일부터 서울 투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비жит서울, 온더로드’를 론칭했다.

6월부터 매달 진행하며 비жит서울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기능을 이용해 진행한다. 매달 서울의 핫 플레이스를 방문하고, 즐길 거리를 소개한다. 국내외 구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방송과 온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외에 넓은 팬 층을 보유한 국내 거주 다국적 인플루언서들이 진행을 맡는다. 첫 라이브 방송은 4일 서울 홍대 앞에서 브라질 출신의 인플루언서 마셀라와 아만다(사진)가 진행했다.

마셀라와 아만다는 4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오마이프렌드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특이한 한국



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K-콘텐츠를 리뷰하고 있다. 이번 방송에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한 브라질 인플루언서 루카도 함께 출연했다.

‘비жит서울, 온더로드’는 올해 연말까지 매달 진행하며 서울의 세계적, 축제, 떠오르는 문화 등을 전 세계에 라이브로 전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